제1강 : 선천적성의 이해

1. 선천적성의 정의

1) 선천(apriorism, 先天)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지니게 되는 성격(각 개인이 지닌 특유한 성질이나 품성, 격식을 이룸)이니 체질 또는 질환 등을 이르는 말이다.

성격의 성향을 한 사람의 예로서 설명을 하자면 명랑하고 쾌활한 당신의 성격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감정이 되어주며, 긍정적이고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원하는 목표를 향해 걸림돌 없이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의명분을 중시하며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는 당신의 이러한 점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실속 있는 삶을 알뜰히 챙기게 하는 인생의 양념이 되어준다. 매우 활동적이고 강력한 성취 의욕은 리더의 일면, 특히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의 이익 추구에 있어 고무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면의 성격은 깔끔한 성품과 강한 자존심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받는 의심이나 무시를 참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매우 냉정하고 보수적입니다. 스스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이든 마음속에 가두어두지만 결백과 정통성을 유지하는 성향이다.

그리고 타고난 본성은 예의바르고 개성적이다.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체면과 명분을 중시해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적인 직언도 서슴지 않지만 뒤끝 없이 처세한다. 표현력이 좋고 호기심 많고 명랑한 언행은 외향적으로 화려하며 용기 있는 자유인을 희망한다.

2) 적성(aptitude, 敵性)

일정한 훈련에 의해 숙달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즉, 어떤 특정 활동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며, 그러한 능력의 발현가능성의 정도를 문제시한다. 지능 또는 일반능력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능력의 가능성을 지칭하는 데 반해 적성은 구체적인 특정 활동이나 작업에 대한 미래의 성공가능성을 예언하는 데 주안을 둔다. 따라서 학력이나 성취도까지도 넓은 의미의 적성에 포함된다. 또 적성이란 일반적인 또는 특수한 지식·기술을 숙달할 수 있는 개인의 잠재력을 지시하는 것으로 전자를 일반

적성, 후자를 특수적성으로 부르기도 한다.
적성은 예언하고자 하는 구체적 활동, 작업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학업성취에 관련된 적성을 학업적성, 직업 활동에 관련된 적성을 직업적성이라 부른다. 또 특수 적성은 사무적성·기계적성·음악적성·미술적성·언어적성·수공적성·수리적성 등으로 세분된다. 그리고 개인의 적성을 밝히고 개인차를 밝히는 데 사용되는 검사를 적성검사라 하는데 각 적성요인을 총괄적으로 측정하여 어떤 직무에 적합한가를 알아보는 일반 적성검사와, 각 적성 요인을 분리해서 개인이 어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특수 적성검사로 나뉜다.
(출처 :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6.29, 하우동설)

외국어표기 carackère enamel(프랑스어), feindliche Eigenschaft(독일어)
전쟁의 당사국이 적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재산의 성질을 말한다. 전쟁이 전면 전쟁 화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원칙적으로 교전국의 국민과 그 재산이 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립국의 그것은 제외된다. 단, 적대 행위와 특히 일방 교전국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중립국인은 적성을 갖는다. 또한 적국에 있는 중립국인은 적국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음으로써 적성을 갖지만 역으로 중립국에 있는 적국인은 원칙적으로 적성을 갖지 않는다.

상선(商船)은 그 국적이 적국에 있는 경우에 적성이 된다. 국적은 게양한 국기에 의해 제시되기 때문에 적 국기를 게양한 적선은 모두 적성이다. 단, 중립 국기를 게양한 상선이 적국기라고 판명된 경우 혹은 게양할 권리가 없는 국기를 게양한 경우에는 적성이 된다. 중립국적의 상선이 적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 중립국 상선이 군함에 의한 정선조치, 임검(臨檢) 또는 수색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경우, 적국 정부의 관리, 명령, 용선, 사용 또는 지시하에 행동하고 있는 경우, 적국 정부의 특허를 얻어 전쟁 개시 전에는 단지 적국 상선에만 인정된 항로의 운수에 종사하는 경우, 개전(開戰) 후 또는 개전 직전에 상선의 국적을 적국에서 중립국으로 이전한 경우와 중립국 상선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 적성의 경우이다. 또한 적국인이 용선(傭船)한

중립국 상선을 적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적성의 상선은 군함에 의해 나포되고 포획심검을 거쳐 적법한 포획물로서 몰수된다. 또한 1909년의 해전법규에 관한 런던선언(미 발효)은 중립국 상선이 직접 적대행위에 참가한 경우와 단지 적국군대의 수송 또는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정보전달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국상선과 동일하게 취급하였지만(46조 (1), (4)), 국제관습법은 적국 군함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공격목표가 된다.
화물이 적성이 되는 것은 소유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적성인 경우이다. 적성화물은 적성 상선 내에 있을 때 몰수되고 중립성 상선 내일 때에는 전시금제품(戰時禁制品)인 경우에 몰수된다. 단, 적성 상선의 화물은 모두 적성의 추정을 받고 소유자가 반증하지 않는 한 몰수된다.

사람이 적성이 되는 것은 적국 또는 적국 점령지에 상업상의 주소를 갖는 경우와 적국 적을 갖는 경우이다. 법인이 적성이 되는 것은 적국 내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적국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와 적국 또는 적국인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이다.
적성의 사람과 법인은 적대거래금지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기의 사람과 법인에 이어 적국과 긴밀한 경제관계에 있는 중립국의 사람과 법인은 국가에 의해 지정된다.
(출처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3) 상담(counseling , 相談)]

카운슬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내담자(來談者)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행동양식을 증진시키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 및 개인적 성장을 위해 상담자과 내담자의 대면 적 관계를 통해 조력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모든 행동변화나 의사결정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상담은 자발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③ 합리적 계획, 문제해결, 의사결정, 환경적 압력에 대한 대응, 일상 행동습관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에 중점을 둔다.

상담은 흔히 심리치료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그러나 상담은 정신질환이 없는 정상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반해서 심리치료는 신경증이나 정신병 같은 이상행동(異常行動)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리치료와 같이 그 이론적 배경이 정신분석학·행동주의심리학·인지심리학·생태심리학 등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대상문제에 따라서 성격상담·학업상담·진로상담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 형태에 따라서 개인상담·가족상담·집단상담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출처 :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6.29, 하우동설)

2. 적천수에서 오행설명을 살펴보면

1) 갑목(甲木)

甲은 陽木으로 하늘까지 올라갈 기세를 가지고 있는바, 春初는 기후나 추운고로 丙丁火가 있어서 한기를 제하고 싹이 돋아날 수 있으며, 새싹이 나는 나무에 金氣가 소용없고 가을에는 土가 많으면 金을 생하여 木을 극하니 土多 함을 거리며, 地支에 寅午戌 巳午未자가 많고 天干에 丙丁火가 있으면 나무가 불에 타게 되나, 사주에 辰字가 있으면 辰은 습토로 능히 火氣를 설(洩)하여 木根을 북돋우며, 地支에 申子辰 亥子丑字가 많고 天干에 壬癸水가 투출하면 水旺木浮하니, 사주에 寅字가 있으면 寅은 木의 祿地로 丙火가 長生하니 능히 水氣를 洩하여 浮木되지 않으며, 水火가 평등함을 지윤 천화라 하나니, 火가 있고 水가 없으면 木의 生氣가 없고 水가 있고 火가 없으면 木이 發榮을 못하나니 水가 개제해야만 좋고 仲春木旺時에 만일 火가 없고, 庚辛金이 있으면 어쩔 수없이 金이 용신(用神)이 되나 上格이 못되고 春月의 木은 火氣를 기뻐한다.

2) 乙木

乙木은 陰木으로 柔弱하나 화초나 넝쿨나무와 같은 바 丑未字에도 능히 着根할 수 있고 申酉 金旺月에 生하여도 丙丁火가 있으면 旺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亥子月에 生하면 地支에 午字가 있어도 水旺木浮기 되어 發榮하기 어려우며, 天干에 甲字나 地支에 寅字가 있으면 四時를 막론하고 극벌(剋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극을 하는 입장과 극을 받는 입장이 되기도 한다.

① 직업은 사무직, 법, 행정계열, 공무원, 교육, 의학, 출판, 방송, 작가, 기자, 음악, 통신, 섬유, 가구, 의류, 문구, 조경, 원예, 약초, 지물, 청과, 산림, 인테리어, 디자인, 농장, 침술, 피복, 신발, 임업, 승려.

② 학과를 살펴보면 교육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청소년학과, 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 의핫계열, 한의학, 고고학과. 사관학교.

3) 丙火

태양의 精이요 순양(純陽)의 性으로 기상이라 함은 水매의 剋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庚金이 비록 완강하나 능히 녹일 수 있고 辛金이 비록 유약하나 합하면 도리어 겁낸다함은 丙辛이 合하면 水가 됨이요. 土가 旺하면 火熱土燥에 생기가 전멸하니 土가 능히 회화(晦火)를 하매, 己土는 습토(濕土)로 대단하지 않으나 戊土가 왕함을 꺼리고, 壬水를 보매 江湖水와 같고 癸水를 보면 상설(霜雪)과 같아서 태양의 성질을 가진 丙火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호마견향(虎馬犬鄕)은 壬午戌이니 지지에 寅午戌이 局을 이루고 천간에 甲木이 투출하면 목기가 자연 분멸(焚滅)하니라.

4) 丁火

丁火柔中에 內性昭融하니 抱乙而孝하고 合壬而忠하며 旺而不烈하고 哀而不窮하면 可秋可冬이니라.

- 丁火는 離火로 內音外梁에 柔中하여 內性이 昭融하며 乙은 丁의 母니 丁이 乙을 호위하여 辛金으로 乙木을 克하지 못하게 함이 內火가 甲木을 焚滅시킴과 같지 않고, 壬水는 丁火의 君이니 壬水가 戊土를 두려워하매 丁壬이 合化 木하여 戊土로 하여금 壬水를 상치 못하게 함이, 己土가 合甲하고 辛金이 合丙하여 그 본성을 변함과 같지 않으며,(己土合甲, 甲從己化, 辛金合丙,

丙失其滅) 太旺 太弱하여도 滅함에 이르지 않고 四柱에 甲乙寅卯字가 있으면 秋冬月에 生하여도 金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① 직업은 전자, 통신, 정보처리, 교환상담원, 안내원, 화학, 섬유, 약품, 기자, 방송, 정치, 언론, 교육, 예술, 예능, 디자인, 발명, 화장품, 예식장, 웨딩홀, 사진관, 조명, 인테리어, 실사, 광고, 극장, 안경, 미용, 이발, 천문기상, 의사, 약사, 항공, 운수업, 택배, 물류업, 설계, 이벤트행사.
② 학과를 살펴보면 인문계, 언론계, 의학계, 약학계, 법조계, 이공계열, 신경의과, 방사선과, 안과, 섬유학과, 의상학과, 이미용학, 안경학과.

5) 戊土

戊는 양토(陽土)이니 그 氣가 견고하고 두터우며 중앙에 거하여 올바름을 얻는다. 봄과 여름에는 기가 動하여 열리므로 생기를 말하고, 가을과 가을에는 氣가 靜하여 모이므로 거두어 저장하니, 그러므로 만물의 명을 맡게 된다. 그 氣가 높고 두터우니 봄과 여름에 생하고 火가 왕성하다면 마땅히 水가 있어서 적셔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만물이 생기를 발하는 것이고, 흙이 건조하면 만물이 메마르게 되는 것이다. 가을과 겨울에 출생하고 水가 많다면 마땅히 火가 있어서 이것을 따뜻하게 해주면 만물이 성숙하게 되고 습하면 만물이 병든다.

간곤(艮坤)이란 寅申月을 말함인데, 봄에는 (木으로부터) 극을 받고 氣가 허하게 되므로 마땅히 고요해야 하고, 가을에는(金으로 인하여) 설기가 심한 것이니, 몸이 약하면 沖을 두려워하게 된다. 만약 戊寅日과 戊申日이 되면 역시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沖을 두려워한다. 또 사계월(四季月 : 辰戌丑未)에 출생하면 庚申, 辛酉의 金을 가장 좋아하는데, 수기(秀氣)가 유행(流行)하여 확실한 귀격(貴格)이 된다. 己土 역시 그러하다. 만약 사주에 木火가 보이거나 혹은 행운(行運)에서 이것을 만나면 곧 파격(破格)이 된다.

6) 己土

己土는 음습(陰濕)한 土로서 중정(中正)의 기품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氣가 팔방에 통하고 사계(四季 : 辰戌丑未月)에 왕성하여 쉬지 않고 만물을 자양

하는 작용을 한다. 木이 왕성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본성이 유습하고 화평하기 때문이다. 木을 도와 배양하니 木이 극하지 않는다. 水가 창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체성(體性)이 단정하고 응결력이 있어서 水를 받들어 저장하므로 水를 沖하지 않는다.

火가 적으면 火가 빛을 잃는다는 것은 情話를 말한다. 음도(音吐)는 능히 火의 기운을 수렴하여 어둡게 만든다. 金이 많으면 金이 빛이 난다는 것은 宸襟을 말한다. 습토(濕土)는 능히 金을 생하고 金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사주에 토기(土氣)가 깊고 경고한데 甁花를 얻어서 그 음습한 기운을 제거하면 더욱 충분히 만물을 자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火土로 방조해야 한다고 한 석이다.

① 직업은 군인, 교도관, 부동산, 컨설팅, 소개업, 건축설계사, 현장 감리사, 통역사, 외교관, 교사,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관광안내원, 스튜어디스, 비행사.

② 학과를 살펴보면 교육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청소년학과, 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 의학계열, 한의학, 고고학과. 사관학교.

7) 庚金

庚은 가을의 숙달지기(肅殺之氣)이고 가장 강건하다. 水을 얻으면 맑아진다는 것은 壬水를 얻음을 말한다. 壬水는 강한 칠살의 기운을 인통(引通)하여 담금질을 하게 하여 수정과 옥처럼 빛이 나도록 한다. 火를 얻으면 예리해진다는 말은 丁火를 말한다. 丁火는 음유(陰柔)하므로 庚金의 적이 되지는 않는다. 훌륭한 대장장이는 쇠를 녹여서 칼과 창을 만들고 풍로를 가지고 단련하면 연장을 만드는 쇠모 탕이 된다. 봄과 여름에 출생하면 그 기가 조금 약하니 辰丑의 습토를 만나면 생하고 未戌의 조토를 만나면 물러진다. 甲木은 적이 되니 힘으로써 이를 벌(伐)하지만, 포악함을 돕지 않고, 庚 은 乙과 합하여 약해지지 않으니, 마땅히 자세히 분별해야 한다.

8) 辛金

辛金은 세상에 있는 오금(五金 : 金銀銅錫鐵)이다. 그러므로 맑고 윤택한 것

을 알 수가 있다. 土가 중첩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戊土가 지나치게 많으면 물이 고갈되고 金이 매물 된다는 말이다. 물이 가득한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壬水가 충분하고 남음이 있어서 土를 윤습하게 하면서 金을 자양하는 것을 말한다. 辛은 甲의 임금인데 丙火로 甲木을 볼 사를 수 있지만 합하여 水로 화하게 하여 丙火로 하여금 甲木을 태우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相生하는 象이 있게 된다.
辛은 丙의 신하인데 丙火가 능히 戊土를 생하지만 丙과 합하여 水로 화하면 丙火로 하여금 戊土를 생하지 못하게 만들어 水로 변하여 丙戊의 지나치게 조열한 것을 막아주므로 오히려 구하지 않겠는가? 여름에 태어나고 사주에 火가 많을 때는 己土가 있으면 火氣를 흡수하여 金을 생존하고, 겨울에 태어나고 水가 왕성할 때 丁火있으면 水를 따뜻하게 하면서 金을 자양할 수 있으므로 더우면 모친을 좋아하고 추우면 丁火를 좋아한다고 한 것이다.

① 직업은 재야운동단체, 노동단체, 금속기술자, 기계기술자, 연구원, 컴퓨터 디자이너, 과학자, 체육인, 의사, 연예인(탤런트, 영화배우), 군인, 경찰.
② 학과를 살펴보면 기계공학과, 금속학과, 섬유공학과, 산업공학과, 재료공학과, 자동차학과, 체육학과, 의예학과, 경찰학과, 사관학교(육사, 공사, 해사)

9) 壬水

壬은 陽水이고 통하(通河)는 곧 천하(天河)이다. 申에서 장생이 되고 申은 天河의 입구가 된다. 도한 곤방(坤方)에 있고 壬水가 여기에서 生하니 능히 西方의 숙살지기(肅殺之氣)를 설기하여 강중지덕(剛中之德)이 되는 것이다. 백가지 물줄기의 근원이며 두루 흘러 막힘이 없고 나아가기는 쉽지만 물러서기는 어렵다. 만약 申子辰 水局이 완전하고 또 다시 癸水가 투출했다면 그 세가 범람하게 되니, 설사 戊己土가 있다고 해도 역시 그 흐름을 막지 못한다. 만 약 강제로 제압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충격(衝激)하여 수환(水患)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木을 써서 이를 설기해야 하고 그 기세에 순응해야 하늘에서 충천하고 지지에서 분탕질을 일으키는 데에 이르지 않는다.
丁과 합하여 木으로 변하면 능히 火를 생 할 수 있으니 끊임없이 化하고 生하는 작용을 할 수가 있고, 化하면 곧 유정하게 된다. 4,5,6月에 출생하고

사주에 火土가 모두 왕성한데 달리 金水가 서로 돕는 것이 없을 경우에, 火가 왕하고 천간에 투출하면 火를 종하고, 土가 왕하고 천간에 투출하면 土를 종하 는데, 조화를 이루 고 윤택하게 되면 水火가 조화를 이루어 상제(相濟)하는 공이 있게 된다.

10) 癸水

癸水는 비와 이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순음(純陰)의 水인데 발원이 비록 길하지만 그 성정은 지극히 약하고 그 형세가 가장 고요하다. 그러므로 능히 土를 윤습하게 하고 金 을 자양하며 만물을 발육시킨다. 용을 얻어 운행하면 변화를 측량하기 어려우니, 이를 일컬어 용을 만나면 곧 化뜻한다고 한 것이다. 용은 바로 辰하이며 진짜 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辰을 만나 化 하게 되면 化의 원신(原神)이 드러나게 된다.

무릇 십간은 辰을 만나면 반드시 천간에 화신(化神)이 투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火土를 근심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약한 성정이 많은 火土를 보면 종화(從化)가 되기 때문이다. 庚辛金을 논하지 않는다는 말은 약한 水는 金氣를 설(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위 金이 많으면 탁하게 된다는 말은 癸水를 두고 한 말이다. 戊土는 합하고 火를 보면 陰이 극에 이르러 陽이 생기니, 戊土는 조건하고 두터운데 사주에 丙火가 투출하면 화신(化神)을 인출(引出)하여 진화(眞化)가 된다. 만약 추동(秋冬)에 태어나고 金水가 지지에서 환하게 되면 설사 지지에서 辰의 용을 만나고 천간에 丙丁이 투출했다고 해도 역시 종화(從化)가 되기는 어려우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

① 직업은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은행원, 물리학자, 수학자, 생물학자, 컴퓨터설계, 프로그래머, 시스템엔지니어, 시스템분석가, 그래픽디자이너, 음악가.

② 학과를 살펴보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미생물학과, 전자계산학과, 정보처리학과, 전산통계학과, 전자과, 전자동학과.

3. 명리직업상담의 의의

인류는 비록 형태는 다르더라도 미래를 알기 위한 일환으로 점(占)이나 예언(豫言, prediction)등에 끊임없이 의지해왔다. 명리상담은 동양의 周易과 서양의 점성술(占星術)과 같이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 중 하나로서 1천년 이전에 출생연월일시로 판단하는 방법이 왕성 되었으며, 그 시원(始原)은 무려 오천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개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결의 방법도 배울 수 있으며, 개인의 특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합리 덕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의 두 가지를 연결시켜 현명한 직업선택을 하려는 상담이론이라고 한다.(김배성. 2009)

직업상담은 내담자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직업적성과 성격, 가치관 등을 분석하고 적합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직업상담가 등의 인생관, 직업관, 가치관 등은 상담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비칠 수 있다.

파슨스(parsons)의 특성. 요인이론, 간즈버그(,Ginzberg)의 발달이론, 수퍼(Super)의 성애공간접근, 타이드만(Tiedman)과 오하라(O′ Hara)의 의사결정접근, 고트프레드슨(Goittfedson)의 제한과 타협, 로(Roe)의 욕구이론, 홀랜드(Holland)의 유형론적 접근, 크럼블츠(Krumboltz)의 사화학습이론, 다위스(Dawis)와 롭퀴스트(Lotquis)의 직업적 음이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직업상담이론은 진로발달이론과 더불어 독자적인 상담단계와 이론이 있다.(재활용)